

증권사 “신규고객 모셔요”… 랩어카운트 역량 강화 나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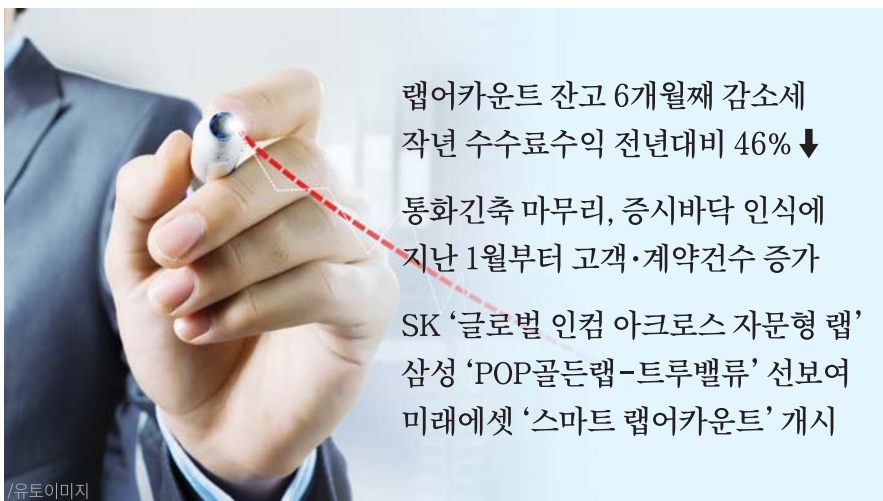
증권사들이 지난해 증시침체에 자금 이 대거 이탈했던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서비스)부문 강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통화긴축 기조가 연내 마무리되고 증시가 바닥을 지났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주요 수익창출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으로 보인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춰 주식·채권·대체투자 상품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고객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WM) 서비스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성장세를 보여왔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랩어카운트 잔고는 지난해 5월 말(153조 7614억원) 고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 7조8456억원이 감소했으며, 레고랜드발(發)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9조3767억원이 급감했다. 이



랩어카운트 잔고 6개월째 감소세
작년 수수료수익 전년대비 46%↓
통화긴축 마무리, 증시바닥 인식에
지난 1월부터 고객·계약건수 증가
SK ‘글로벌 인컴 아크로스 자문형 랩’
삼성 ‘POP골든랩-트루밸류’ 선보여
미래에셋 ‘스마트 랩어카운트’ 개시

후 11월에 9조6935억원, 12월에 8조 3665억원이 각각 줄며 지난 하반기에만 약 35조원 넘게 빠졌다.

투자자들의 이탈에 증권사들의 랩어카운트 수수료 수익도 급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난해 랩 수수료 수익은 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줄었으며 삼성증권은 지난해 21년(304억원)대비

32% 감소한 206억원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수수료 수익도 각각 26%, 24% 줄었다.

다만 올해 들어 랩어카운트 잔고, 고객 수, 계약 건수 등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증권사 일일형 랩어카운트 평균금액(계약자

산)은 114조237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15조1181억원)보다 8805억원 줄었지만 감소폭이 축소됐다. 고객 수와 계약 건수는 지난 1월 기준 전월 대비 각각 2390명, 2225건 증가했다. 이는 작년 12월 고객 수와 계약건수가 전월대비 각각 4490명, 5412건 감소한 데 반해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올들어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 신상품을 출시 등 서비스를 강화해 수익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증권은 지난 15일 금융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글로벌 인컴 아크로스 자문형 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랩어카운트 서비스는 아크로스가 지난해 5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Akros Monthly Pay out’ 상장지수펀드(ETF)와 미국 주식을 활용해 운용한다. 매달 순자산의 0.

4%(연 4.8%)를 달러화로 분배금을 지급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3일 랩 어카운트 ‘삼성POP골든랩-트루밸류’를 선보였다. 30종목 내외로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치우치지 않은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으며 매크로 환경을 대비해 현금 비중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하나의 랩계좌에서 다양한 운용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개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증시 부진으로 랩어카운트 자금이 빠져나갔으나 올해는 통화 긴축기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증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신상품 출시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와이지엔터, 트레저 등 성공데뷔에 수익개선 기대감

metro 관심종목

주가 3200원 오른 5만5100원
작년 4분기 매출액 1250억, 40%↑
수익정산 이연에 컨센서스는 하락

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와 같은 메가 IP(지식재산권)뿐 아니라 트레저, 베이비몬스터 등 신인그룹의 성공적 데뷔가 예상되면서 수익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 거래일 대비 3200원 오른 5만51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하더라도 4만원을 밀돌았던 와이즈 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중 6만원대 초반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5만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와이지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증대에 도 컨센서스(전망치 평균)을 하회한

〈와이지엔터 목표주가〉 /자료= 각 사

증권사	목표주가
NH투자증권	7만7000원
흥국/한화	7만5000원
교보증권	7만원
하나증권	6만9000원
유진투자증권	6만8000원

바 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250억원, 영업이익 157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5%, 18.4% 증가했다. 다만 당초 영업이익 전망치로 2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밀둔 것이다.

다만 이번 컨센서스 하락은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수익 정산 시점이 이연돼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수

적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블랙핑크 콘서트 및 트레저 MD 관련 이익이 이연됐고, YG인베스트먼트의 영업손실에 따라 연결 이익 훼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다만 수익 인식 시점 차이일 뿐 관련 이슈 모두를 고려할 경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블랙핑크, 트레저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본격적인 활동에 힘 입어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블랙핑크 글로벌 투어는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까지 총 56회가 예정돼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최장기간 최다 횟수 규모 글로벌 투어임에도 홈페이지 공연일정에 여전히 ‘And more’가 있어 추가 공연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블랙핑크뿐 아니라 지난 2020년 데뷔한 다국적 보이그룹 트레저의 일본

투어 성공도 향후 주가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공연 중 아레나 투어에서 22만명, 추가 2회 교세라 돔 오사카 공연에서 8만명을 모으며 일본 내 인기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차세대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까지 데뷔가 가시화되면서 주가 반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이현지 연구원은 “올해부터 아티스트 단위의 멀티 조직을 구성하고 프로듀서센터를 신설해 약점으로 꼽혀왔던 아티스트 활동 공백기를 크게 줄여 실적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이 7만7000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더불어 이달 들어서 보고서를 제시한 4개사 중 흥국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익 추정치를 높여 잡으면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영석 기자 ysl@

서울 아파트값 0.16% ↓… 하락폭 5주 연속 축소

강북구 -0.31%서 -0.26%

도봉구 -0.39%서 -0.29%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5주 연속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2주째 상승하면서 회복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주(-0.21%)보다 0.05%포인트(p) 축소되면서 5주 연속 낙폭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에서는 강북구(-0.31%→-0.26%)가미아·수유·반동대단지, 도봉구(-0.39%→-0.29%)는

창·쌍동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서남권에서는 강서구(-0.42%→-0.37%)가 등촌·방화·가양동 구축, 금천구(-0.46%→-0.37%)는 시흥·독산동 대단지, 관악구(-0.33%→-0.27%)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영등포구(-0.25%→-0.23%)는 영등포·문래·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줄었다.

동남권의 경우 지난주 유일하게 상승으로 전환했던 송파구(0.03%→-0.01%)가 다시 하락 반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곳 중 서초구(-0.01%→-0.01%)를 제외한 강남구(-0.10%→-0.07%)와 용산구(-0.23%→-0.14%)

는 하락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대출 금리 인하 등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희망 가격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추가적인 상승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며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는 2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3일 기준)는 68.4로 전주(67.4)보다 1.0p 상승했다. 기준선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전히 매수세가 약한 모습이지만, 최근 급매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

로 2주째 오름세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거래 증가에 따른 매도 호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지역 및 가격에 따라 온도 차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호가를 낮춰 급히 처분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아, 서울 내에서도 입지나 가격 구간별 온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분양 캘린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조감도. /대우건설

이번주 707가구 분양 견본주택 2곳 오픈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1개 단지 총 707가구(일반분양 70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농소동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 인천 서구 오류동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등 2곳에서 개관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시 농소동 일원에 ‘정읍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 규모다. 단지에서 반경 1km 정도 거리에는 정읍역과 호남고속도로 정읍IC,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한다.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관공서 등이 단지와 인접해 있고 정읍북초, 수성초, 정일중, 정읍제일고, 서영여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일원에 휘경3구역 재개발에 짓는 ‘휘경자이디센시아’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는 회기역과 1호선 외대앞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들이 주변에 위치한다. 근 거리에 대형 편의시설, 의료시설이 자리해 생활이 편리하다.

/김대환 기자